

재즈 축제의 장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

전북문화관광재단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 현대음악발전협회 운영... 더 바인홀서 11월 3일까지 개최

'2023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이 2일 더 바인홀(전주시 삼천동 소재)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23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현대음악발전협회(대표 김주환, 재즈보컬리스트)가 기획 운영하는 행사다. 이에 따르면 '2023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팀의 재즈 트리오가 세계적인 재즈 명반을 라이브 연주하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재즈 축제의 장이다. 첫 무대를 여는 팀은 '탁경주 트리오'다. 탁경주 트리오의 2013년에 데뷔한 이래로 정통 재즈기타 연주를 고집해 온 탁경주(기타)와 국내 최고의 리듬 섹션인 신동호(베이스), 임

주찬(드럼)이 함께 활동하는 팀이다. 탁경주 트리오가 '2023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 개막 공연에서 재현할 명반은 바로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Barney Kessel(바니 케셀)의 'Swinging Easy!'다. 바니 케셀은 완벽한 재즈기타 연주 테크닉을 바탕으로 빠르고 압도적인 즉흥연주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유로운 코드-멜로디 주법(벨로디)과 화성을 동시에 연주하는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는 기타 트리오 구성(기타-베이스-드럼)의 대표적인 연주자다. 개막 공연을 맡게 된 탁경주 트리오의 "2023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의 첫 무대를 꾸미게 돼 영광"이라며 "음악과 연주에 대한 열정과 예

술적 표현력을 최대한 발휘해 재즈를 통해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영감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은 6월 2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더 바인홀(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4)에서 매일 첫 번째 금요일과 마지막 금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공연이 펼쳐진다. 티켓 가격은 1회권 3만원, 3회권 7만원, 5회권 9만원, 7회권 12만원 10회권 1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매 및 관련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더바인홀' 검색 후 채널추가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웹진 '마중' 1호 발행

문화관광 관련 정보·재단 정보 등 독자에 제공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5월 31일 전라북도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인 웹진 '마중' 1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웹진 '마중'은 도내 문화관광 관련 정보, 재단 주요사업, 재단 직원 이야기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아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JB커버스토리, JB시선집중, JB돋보기 외에도 JB정책정보가 신설돼 독자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관광 정책정보도 함께 전달된다. 웹진 '마중'은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http://jbmjng.or.kr)를 통해 독자들에게 격월로 공개되며, 재단 홈페이지(http://jct.or.kr)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1호 발행 기념을 맞아 독자 대상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웹진을 읽고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웹진 '마중'은 전라북도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으로써 전라북도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해는 보다 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생애 사진전'

9일 군산 현진갤러리서 DJ 일생 한자리서 감상할 수 있어... 사진 130여점 전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주년 생애 사진전'이 군산에서 열린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 그가 남긴 발자취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보는 듯하다. 지난 1971년 의문의 교통사고를 비롯해, 동경 팔레스호텔 납치 사건, 가택연금 및 사형선고, 국외 망명, 대통령 당선,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벨평화상 수상 등의 기록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았구나!' 소리가 절로 나온다. 오는 2024년 1월 6일은 김대중(DJ)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이다. 이에 서적 출간, 다큐 영화, 연극, 서사음악회 등 전국 규모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에서도 도전과 응전,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DJ의 일생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김대중 생애 사진전'이 오는 9일(오후 5시) 현진갤러리에서 열린다. DJ 사진전(9일~28일)은 군산에서 세 번째 열리는 기록사진전으로 '김대중 대통령 군산기념사업회(회장 조종안)'가 주최하고, 후광김대중마을(다음 카페)이 주관하며 전북도와 군산시가 후원한다. 전시장에는 교복 차림의 섬 소년에서 대통령 퇴임 후 일생을 마감하는 해까지 100년의 발걸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진 13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1971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 유세를 듣기 위해 청중이 구름처럼 운집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주년 생애 사진전'이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공설운동장을 비롯해 1987년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중앙로에 걸린 김대중 사면복권 환영 현수막(1987), 군산시의원들과 변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즐기는 모습(1992), 구군산역 광장 유세(1995), 군산자유무역지역 기공식 참석(2000), 이희호 여사 동국사(평화의 소녀상), 해망동 여시장 방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방문(2015) 등 군산 관련 사

건 30여 점도 시선을 끈다. 조종안 회장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구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에 함께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귀한 말씀 남겨주시면 영광이겠다"며 "사진전이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자치기관 및 김대중 관련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10개 단체 선정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이 '2023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10개 단체를 발표했다. '2023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이하 수수콘)'에 선정된 단체는 전주작곡가협회, JB트럼본앙상블, 무림, 아트컴퍼니 두루, 문화통신사협동조합, 팝페라 T&B, 권재환, 문화예술단체 공감, 전주민예총, 전북레이디스합창단 등 총 10곳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이야기를 다룬 음악극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의 역사음악창작극 '석달'을 시작으로 전주작곡가협회 회원들의 창작작품

발표회 <선율이 있는 아름다운 꿈의 세계>, 아트컴퍼니 두루의 뮤지컬 <우주멜로 뮤지컬 웨이팅(Waiting)>, 권재환의 전통연희 <노리토>, JB트럼본앙상블의 <Young Artist Concert>, 전주민예총의 <전주 국악 & 클래식 연주회>, 팝페라 T&B의 음악공연 <RINASCERE 다시 일어서다>, 문화예술단체 공감 <가을 밤 선보이는 음악으로 산책>, 전북레이디스합창단의 <우리 가곡의 날 기념 음악회>, 무림의 너버널 댄스컬 <당신은 어느 세대에 살고 있나요?> 등 2023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은 댄스, 뮤지컬, 합창, 클래식, 전통, 퓨전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팀들이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10일 '송천다복 음악회'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0일 오후 6시 송천동 세병공원 야외무대에서 '송천다복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천다복 음악회'는 전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국민종합주택관리가 후원한다. 올해는 세병공원 페스티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스윗소로우, 박필규, 달빛하모니 합창단 등 출연자 라인업을 강화했다. 스윗소로우는 무한도전,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출연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컬 그룹으로 '아무리 생각해

도 난 너를', '사랑해', '간지럽게' 등 전주시민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박필규는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 K'에서 군인신분 최초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며 감미로운 목소리와 호감의 외모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달빛하모니 합창단은 2016년 창립 후 어울림 음악회와 작은 음악회 등 40여 명의 단원과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전석 무료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6월 여행가는 달' 협업 할인 이벤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1~30일까지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이하 브랜드공연) 관람료 40% 할인 이벤트를 진행

한다. '여행가는 달' 기간(6월)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권 쿠폰을 지참했을 시 R석 18,000원, S석 12,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다만, 할인권 타 쿠폰 및 할인혜택(경로·유공자·단체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전화예약 또는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